



대선주자들 물고 물리는 견제·신경전

원희룡 지사 직 유지하며 대선 도전 이재명 저격 김두관 당내 유일 현직에 공정경선 촉구 '직격탄' 윤석열 입당하자 마자 초선의원 간담 접촉면 확장

여야 대선주자들이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주자들 간 물고 물리는 견제에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원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두고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사퇴선언에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권도전 중인 이 지사를 예뻐려 비판했다.

이 지사 또한 원 지사를 겨냥한 듯 "월급만 촉대며 하는 일 없는 공직자는 하루 빨리 그만두는 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할 일을 해 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대선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

로 버릴 수 없다"고 대응했다.

여기에 원 지사 역시 2일 SNS를 통해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도지사와 선거운동이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라며 "저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국민과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도지사 역할을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지사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당 소속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도 공정경선을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정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도민 전체에 지급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의 6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 '공정경

선'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면서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는 국민의힘에서 원 지사와 한 술밥을 먹게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원 지사의 당 내 지지세력의 한 축을 이루는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명을 포함한 지지모임 '희망오름'을 출범시켰는데,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강연,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문명문에서

세계가 주목한 송악산, 보호방안은

이번 달부터 6년간의 휴식을 마치고 송악산 정상부 일부가 개방된다. 하지만 송악산 서쪽 언저리는 사람의 발자취로 인한 훼손을 치유하기에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언제면 송악산 전체를 마음껏 둘러볼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



고은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악산 주변은 울레 10코스로 많은 탐방객들이 걷는 곳이다. 딱히 이 코스 만이 아니더라도 송악산 탐방로에 들어서면 산방산부터 이어지는 해안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 볼 수 있는데 형제섬을 넘어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한 시야에 들어온다. 다시 발을 돌려 해안가로 내려가 보면 동굴진지들이 과거 아픈 사실을 토해내듯 파도와 맞서고 있다. 주변 너머에도 80여년 전 우리 조부모들이 강제 동원되어 만들어진 군사시설들이 역사를 알려주듯 가려진 숲 사이로 그 흔적을 보여 준다.

색 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역사유적보다 더 많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대까지 역사적 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이처럼 세계유산급의 가치를 지닌 송악산이지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은 물론 지질공원의 대표명소에서도 제외되어 어떤 법적보호망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송악산과 주변 인문학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해 오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 송악산의 역사성과 지질학적인 가치에 '주목' 자원 보호방안 고민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송악산은 이 정도 일 것이다. 지난해 2월, 송악산 개발사업과 맞물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표출된 찬반이 갈리는 요구 사항 때문에 송악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악산 일대는 1994년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관광지구로 지정되었고, 유원지로 고시된 후 몇 차례의 개발 중단 속에서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토론회에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세계는 송악산의 역사성 외에 지질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송악산 일대는 화산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화산이 분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선사시대 인간과 동물의 흔적을 화석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학술 가치와 학계 인지도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보다 감

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역사유적보다 더 많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대까지 역사적 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이처럼 세계유산급의 가치를 지닌 송악산이지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은 물론 지질공원의 대표명소에서도 제외되어 어떤 법적보호망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송악산과 주변 인문학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해 오지 못했던 것이다.

별써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표명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지 15년이 지났다. 많은 외자 유치와 종합계획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자연·문화 경관들을 변형시키고 있고, 정주환경 개선이란 이유만으로 공간의 확장은 과거의 습속을 소멸시키고 있다.

급속히 사라지는 자연문화경관과 문화정체성까지 희석되는 현실에서 세계 유수학자들에 의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주변 자원에 대해 우리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세계가 주목한 자연을 위해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이란 제도권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존과 상생이란 이름으로 가장된 지역 이기주의에 국한된 활용 논리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있다가 후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쥘아 하기 때문이다.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다.



수보회의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무감사 결과 본 뒤 처분" 이준석, 제주도당 관련 입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제주도당 당무감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본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제주도당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주도당의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무감사 등을 이유로 제주도당에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중앙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당 일부 당원들은 도당대회 연기 이유가 원희룡 제주지사 쪽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도당대회 연기 이유가 허황진 전 제주대 총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도당을 사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부미현기자

휴가 대신 방역회의·폭염대책 점검 문 대통령,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들께서 기다리던 휴가조차 맘 편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무척 마음이 무겁다"면서 코로나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대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여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20~40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주에

정했던 여름휴가를 미루고 방역회의·폭염대책 점검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받는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작은 위로와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휴가 대신 선택한 8월 첫 주의 일정에 가득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규제 시행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대신했다. 지난해에는 주말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갔다가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휴가를 취소하고 상경한 바 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제)제주테크노파크 제2021-132호
JTP 제주테크노파크
JEJU TECHNOPARK

2021년도 제3차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모집공간

센터명	호실	계약면적(㎡)	임대료(월/년)	보증금
제주벤처마루	506호	107.24	5,190(월/㎡당)	89,800(㎡당)
제주벤처마루	603호	111.59	5,190(월/㎡당)	89,800(㎡당)
바이오융합센터2호관	203호	83	6,260(월/㎡당)	93,300(㎡당)
디지털융합센터	201호	239.24	5,190(월/㎡당)	89,800(㎡당)
융합해수센터2호관	302호	98	6,260(월/㎡당)	79,400(㎡당)

□ 대상기업

- 제주벤처마루: IT, CT, ICT, 신재생에너지 분야
- 바이오융합센터: BT분야
- 디지털융합센터: 방송통신, IT, CT, ICT
- 융합해수센터: 융합해수를 활용한 BT 분야

□ 입주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폐수(인허가 제외대상),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청주경제혁신센터 및 청주보육센터의 입주한 기업
- 제주테크노파크의 입주공간을 출입 또는 퇴실한 기업
- 기타 법원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입주신청

□ 기 간

- 접수기간: 2021. 7. 23.(금) ~ 8. 6.(금) 18:00
- 접수마감: 2021. 8. 6.(금) 18:00까지

□ 입주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www.jejutp.or.kr>)
-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 제3차 입주 모집 공고"
- 접수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온라인 접수**

3] 입주조건 및 유의사항

- **입주조건:** 입주기간은 **최초 3년**
- **승인 취소 대상**
'입주승인'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입주승인'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임대차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 **계약취소 대상:** 상세한 내용은 '입주모집 공고문' 참조
- **입주신청 전 필수사항**
입주신청서 접수 전에 희망 입주공간에 대해 반드시 입주조건, 주변상황, 공간의 상태, 관계 기관의 인/허가 조건 등의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구 분	연락처
입주 관련 문의	한승환 연구원 ☎ 064-720-304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김경태 연구원 ☎ 064-720-3077

※ 온라인 접수 관련 외 입주 문의는 064-720-3041에서만 답변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 제3차 입주 모집 공고」 검색 - 입주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전래놀이 및 제주어구연을 통한 치매예방을 위한 '뇌힐링' 무료교육 수강생 모집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전래놀이 및 제주어구연을 통해 건강을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간	교육내용
전래놀이 및 제주어구연 프로그램	8/6,13,20,27 9/3,10 (매주 금요일) 14시 ~ 17시	- 전통전래놀이의 실제 - 전래동요의 활용법 - 제주어구연 이론 및 문화 - 제주의 설화 및 속담 알아보기 - 제주어로 부르는 우리민요

- * 신청대상: 제주도민 만60세이상
- * 수강료: 전액무료
- * 교육장소: 제주시 도남로142, 범야빌 101호
- * 신청방법: - 전화접수 064)727-1297
- 휴대폰 010-3639-3922
- * 신청기간: 21.8/2 ~ 8/5

주최: (사)치매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